

# 횡령범죄 진화하는데...검거율은 절반도 안돼

작년 광주 1,501건·전남 1,266건  
경찰, 고의성 입증·개별 대응 한계

#1.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 A씨는 법인통장에 든 골프장 수익·운영금 등을 2~3일에 한번 꼴로 수천만원씩 빼돌렸다. 이 중 일부는 다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 횡령사실을 피해가며 혼란을 줬다.

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 A씨는 자신의 통장에 든 횡령자금을 해외 스포츠경기 배팅사이트 여러 곳에 투자했고, 돈을 잃을 때마다 횡령금액도 커졌다. A씨 범행은 피해 골프장이 거래처와

결제과정에서 법인통장 잔고를 확인하고서야  
덜미가 잡혔다.

#2. 중고차 딜러인 B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 
후배 C씨에게 현금 대신 5,200만원 상당의 차량  
을 계약해 빌려줬다. C씨는 할부금을 자신이 납  
부하고 차량 또한 금방 돌려주기로 했지만 약속  
은 지켜지지 않았다.

B씨는 C씨에게 다시 돌려달라며 독촉했지만  
이미 B씨의 차량은 1,200만원의 담보를 걸고 대  
포차로 유통시킨 상태였다. C씨는 자신이 운영  
을 하는 가게를 팔고 빌려간 차량금액을 변제하  
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B씨는 C씨  
를 횡령범으로 올해 2월 경찰에 고발했다.

광주·전남 지역에 횡령 범죄가 해마다 1,500  
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도 못  
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진화되고 있지만 경  
찰의 인력 구조 한계로 범죄의 고의성 입증 등을  
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

17일 광주·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 
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은 1,501건이며, 검거  
는 717건이다. 전남은 1,266건이 발생해 778건  
을 검거했다.

이처럼 횡령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 
실제 검거율은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.

검거율은 광주·전남 47.7%, 61.4% 를 각각  
기록했다. 반면 광주의 5대 범죄(살인, 강도, 강

간, 절도, 폭력) 검거율은 살인 111%, 강도  
100%, 강간 102%, 절도65%, 폭력 88%로 상대  
적으로 높았다.

횡령 범죄의 경우 '주책의 해외 거주', '영장  
신청 절차의 복잡성' 등으로 여타 범죄보다 수  
사가 어렵고 낮은 처벌과 소위 '한탕'으로 획득  
하는 금전의 가치를 이익으로 생각한다는 인식  
이 높기 때문이다

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"더욱 복잡해진 범  
죄구조 등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들이  
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마련해 두는 점 등이 작용  
해 검거율이 낮다"며 "범죄자들은 징역을 살다  
라도 일확천금을 버는게 낫다는 생각들을 하고  
있다"고 말했다.

여기에 진화하는 횡령 지능범죄를 대응하기  
위해 수사경찰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 
도 나온다.

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김정규 교수는 "지능범  
죄는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만큼  
이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은 더 크게 늘어야 한  
다"며 "현재 경찰청의 인력배치는 현실에 맞지  
않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는 인력 재배치를  
해야 한다"고 말했다.

이어 "조직 내 횡령의 경우 세무법인이 꼼꼼  
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횡령을 감지하기 어려운  
구조로 내부 감시망과 세무감사가 강화돼야 한  
다"고 덧붙였다.

전남자치경찰위원회 김문호 위원은 "횡령은  
범인이 특정되지 않기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  
정이다"며 "횡령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  
해서는 경찰·시민들의 경각심과 자체 정비가  
필요하다"고 말했다. /임채민 기자



지난 16일 오전 광주시장애인체육센터에서 열린 '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산악인 고 김홍빈 대장 1주기 추념식'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영정을 여루  
만지고 있다. /김성훈 기자

## ‘뇌염증상 영아 치료소홀’ 의사 항소심 무죄

법원 ‘상태 악화 단정 어려워’

뇌염 증상이 있는 영아에게 해열제만 투  
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치게 한  
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 
무죄를 선고받았다.

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  
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  
사 A씨(43)와 간호사 B씨(40·여)씨에 대  
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
17일 밝혔다.

A·B씨는 2015년 9월 18일 뇌염 증상으  
로 전남의 한 지역 여성아동병원에 입원한  
영아 C양(당시 생후 48일)에게 적절한 조  
치를 하지 않아 뇌수막염, 사지 마비, 저산  
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  
의로 기소됐다.

검사는 A씨가 C양에게 해열제만 투여한

채 다른 치료 방법을 찾지 않았고 충분한 문  
진을 통해 C양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 
못한 점, B씨가 C양의 증상을 A씨에게 적  
기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 
인정된다고 봤다.

1심은 A씨가 C양의 증상 원인을 밝히기  
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  
다면서도 과실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 
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A씨가 C양에게 다른 처치를 했더라도 상  
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상태가  
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 
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재판부는 "A·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 
심 판단은 정당하다"며 검사의 사실오인과  
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/최환준 기자

## 정부, ‘고 김홍빈 대장 구조비’ 구상권 청구 논란

광주시산악연맹에 비용 상환 요청

정부가 1년 전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 
뒤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  
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다.

17일 광주시산악연맹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  
난달 연맹에 고 김홍빈 대장 조난 당시 수색과  
구조에 사용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

을 보냈다.

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자 외교부는 파키  
스탄에 구조 헬기를 요청했다. 당시 헬기는 3차  
레 출동해 사고 지점을 수색했으며, 여기에 들  
여간 비용 6,800만원을 외교부가 부담했다.

외교부는 "재외국민이 자신의 생명, 신체 및  
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, 외  
교부가 청구한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"는 관련

법 규정을 들어 김 대장이 속한 광주시산악연맹  
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 
전해졌다. 하지만 광주시산악연맹은 김 대장이  
국위 선양을 위해 히말라야 등반에 나선 만큼  
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

피길연 광주시산악연맹 회장은 "개인 영달이  
아닌 장애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  
고자 등반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것인데 구조  
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하다"며 "이번  
기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/임채민 기자

## 광주 경찰기동대 간부 근무지 이탈 의혹

광주에서 경찰기동대 일부 간부가 근무지를  
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  
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.

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산하 기동대  
소속 중간 관리자급 경찰관들이 근무지를 이탈  
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.

관련 내용을 인지한 광주청은 국무조정실 산  
하 공직복무관리실 제보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

절차가 시작되기 이전 자체적으로 확인 절차에  
들어갔다. 복무규율 위반 등 문제가 드러나면  
감찰 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.

해당 기동대의 중간 관리자 일부는 대원들이  
야간 교통·방범 근무에 투입됐을 때 무단 조퇴  
등으로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는다.

광주청 관계자는 "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합  
당한 조치를 하겠다"고 밝혔다. /최환준 기자





**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**

**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"여보야"**



빅데이터와  
최신 AI로  
배우자 찾기



프리미엄  
결혼 플랫폼  
여보야 노블레스



결혼부터 출산까지  
여보야가 적극  
지원해드립니다

"여보야" 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
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.

**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, 여보야**

- ✓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**최저가 서비스**를 제공합니다.
- ✓ 남성회원은 **2~3만원**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.
- ✓ 여성회원은 **무료**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**고객센터 1522-3379**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

**이제 "여보야"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**

다운로드하기   